

중등부 대상



▶바이올린 예원학교 홍성란

코리아헤럴드 콩쿠르에서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무대에서의 나의 모습, 태도, 느낌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곡에 대한 제 느낌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어려웠는데,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지는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음악을 느끼고 즐기며 나 자신도 만족하고 청중들의 마음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과 깊이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반주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



▶초등 저학년부 1위 - 강선초등학교 김다인

이렇게 좋은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선생님보다는 언니처럼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가르치심과 이끌어주심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반주로 도와주신 반주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언니 따라서 어찌너머로 배우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연주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하다 보니 1등을 수상하는 기쁨도 받았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연주하는 것이 즐겁듯이 저의 연주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위 - 언북초등학교 김지민

이번 콩쿨은 초등부의 마지막인 6학년으로 참가해서인지 어느 때보다 더 뜻 깊고 값진,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훌륭한 가르침 주시는 선생님과 멋진 반주로 저의 연주를 돋보이게 만들어주시는 반주 선생님,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사랑하는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며 음악을 사랑하고 발전하는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중등부 2위 - 예원학교 이지민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한 무대를 하지 못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항상 끝없이 넘치는 열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과 늘 곁에서 지지치 않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는 이수정 반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입시를 준비 하면서 많이 두려웠는데 이번 콩쿨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좀 더 섬세하고 나만의 색깔이 담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일반부 1위 - 한양대학교 송하영

늘 믿고 지켜봐 주시는 가족과 그동안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섬세하고 성실한 음악 연구와 연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저만의 매력적인 색깔과 개성을 가진 좋은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올라



▶초등 저학년부 2위 - 금화초등학교 배서연

제가 이런 상을 타게 되어 기뻐요.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연주하라고 웃어주시고 레슨 때마다 같이 연주해주신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 항상 믿어주신 부모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연습하는 게 많이 힘들지만 콩쿨 무대가 끝나고 나면 참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비올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중등부 1위 - 선화예술학교 강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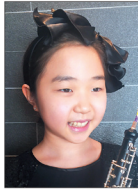
처음으로 큰 콩쿨에 나가 입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비올라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 저를 아끼고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콩쿨은 저에게 어려웠던 콩쿨이었습니다. 바흐 무반주 4번과 브람스 소나타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브람스 소나타는 레가토와 비브라토가 잘 되어야하는 곡이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 뿌듯하고 기쁘고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모님과 선생님,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등부 1위 - 서울예술고등학교 나은수

입시를 시작하고 처음 참가한 콩쿨에서 1위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곡을 새로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안했었는데 이번 콩쿨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옆에서 기도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올라의 중후하고 따뜻한 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보에



▶초등 고학년부 1위 - 매봉초등학교 한유진

제8회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쿨에서 1위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무엇보다 처음 하는 1등이라서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콩쿨이 저에게 많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무대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훌륭한 오보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중등부 1위 - 광려중학교 김주혁

오보에로 첫 콩쿨을 준비하면서 많이 떨리고 힘들었지만 함께 준비한 친구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즐겁게 연습에 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처음 오보에란 악기로 오보에 연주자를 꿈꾸게 해주신 선생님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보에를 사랑하는 멋진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의 연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1위 - 조연수

몇 달 안남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콩쿨에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되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오보에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의 소리’ 오늘을 울리고...

부문별 심사위원장



서영진
관악 부문



김대환
바이올린 부문



조명희
비올라 부문



최상호
성악 부문

700여명 이상의 음악 전공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헤럴드콩쿠르는 지난 8월 20, 21일 예원학교에서 예선을 진행했다. 이날 치열한 경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220명이 결정되었다. 같은 달 27일 본선에서 트럼본 1명, 호른 2명, 피아노 4명, 플루트 6명, 첼로 4명, 오보에 4명, 성악여자 2명, 성악남자 1명, 비올라 3명, 바이올린 4명, 클라리넷 4명 등 최종 35명의 1위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1위 수상자 중 중등부 1명(바이올린), 고등부 1명(성악남자), 대학일반부 1명(피아노)은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상까지 거머쥐는 행운도 함께 누렸다.

성악남자



▶초등 고학년부 1위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김유빈

1학년 때 취미로 시작한 노래가 꿈이 되었고, 어떤 것이 행복한지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욕심이 생겼고 열심히 할수록 그 꿈은 더 커져갔습니다.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며 가장 먼저 꿈을 키울 수 있게 이끌어주고 항상 믿어주신 TBC수성아트피아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선생님, 트레이너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른길로 인도해주시며 저를 위해서 늘 좋은 말씀해주시는 담임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뒤늦게 입시 준비를 하게 되어 동요에서 성악으로 변경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몸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신 가족, 늘 응원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주위에 모든 분들과 성악 콩쿨은 처음인데 너를 믿는다 해주시며 너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지도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게 마냥 좋아서 꿈을 키워가지만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겸손하고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꿈을 꾸는데 있어서 자신감과 노력하는 된다는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이렇게 감사인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쿨에도 감사드립니다.

성악여자



▶초등고 2위 - 용산초등학교 노수윤

저에게는 101세이신 증조할머니께서 계십니다. 지금은 노인병원에 계시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함께 지내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에게 노래 신청을 하였고, 저는 놀다가도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음악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꼬마 때는 동요를, 외국에 있던 동안은 팝송을, 지금은 클래식 음악을 그리고 보면 언제나 음악과 함께 해 왔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지금부터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수상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겸손함과 자신감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생님과 부모님, 조부모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중등부 1위 - 예원학교 김정민

에고입시를 준비하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마음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해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꿈을 향해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성악도가 되겠습니다.



▶고등부 저학년부 공동2위 - 서울예술고등학교 박서희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사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항상 큰 힘을 주시고 저를 위해 아낌없이 배려해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좋은 의미에서 주시는 상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더 매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